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공생 원력 30년

8월 8일 개원 3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사부대중 50여 명 모여서
30년불사 되짚고 새 발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 선사의 공생실천 원력을 이어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8월 8일 울산지원 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과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천주현 신도회장, 박정애 신도회 부회장, 박태엽 초대 신도회장, 황경환 2대 신도회장 등 전현직 신도회 임원 및 이상헌 울산시 북구 국회의원, 이동권 울산시 북구구청장, 정갑윤 前 국회부의장,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만 법당에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불교도노래 △한마음선원가 △부처님과 대행선사 전 꽃공양 △입정 △대행선사 영상법문 △경과보고 △내빈소개 △개원 3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격려사 △축사 △인사말 △30주년 기념품 전달 △코로나19극복 이웃돕기 성금전달 △30주년 축하 떡케익 절단 △선법합창단 음성공양 △사홍서원 및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국내외 각 지원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닫힌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일종의 통신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 스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며 "1991년도 개원법회 법문을 곱씹어 보면, 초심자부터 수행자까지 아우르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다. 포항지진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울산지원 개원 이후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은 단순한 역경이 아니라 또 다른 정진의 과정이었다"고 울산지원 건립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울산지원 도량이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은 큰 의미가 있다. 팬데믹 시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맞이한 개원 30주년이 앞으로 코로나와 공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8월 8일 울산지원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그동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중들의 사연과 인사들이 오갔다.

천주현 신도회장도 "울산지원은 199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도분들의 원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30년을 넘어 다음 생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행 큰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법회서 외빈 축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됐다.

외빈을 대표해 정갑윤 前 국회 부의장은 "30주년을 맞을 때까지 처음부터 지켜봤다. 초기의 태화동 시대와 IMF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천곡동 시대를 맞은 것은 많은 신도분들의 원력 때문"이라며 "한마음선원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많은 분들의 안식처가 됐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역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시점서 한마음선원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도 "대행 큰스님께서 올림픽선수촌 법당 건립에도 기여하시고, 불자선수들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셨다는 보도를 보면서 울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울산지원 또한 대행 스님의 수행력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터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치기 전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사하라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울산지원 불사의 기반이 됐다. 지역서 불사를 하면 세계적으로 마음공부를 하는 한 분 한 분이 늘고, 정신세계도 발전한다는 말씀이셨다"며 "근본자리에서 잘 관하고 맡기고 놓으며 앞으로의 역경도 이기고자 한다. 부처님 가르침, 큰스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30년사

1991. 2. 23
대행 스님, KBS울산홀 여성교양강좌 초청법문

1991. 8. 11
울산 중구 태화동 451-17번지서 울산지원 개원

1992. 10. 11
법형제 법회 및 보살신행회, 청년회, 학생, 어린이법회 창립 / KBS울산홀서 대행 스님 초청대법회, 불교음악회 봉행

1994. 6. 12
KBS울산홀서 울산호국영령대법회 및 합동천도재 봉행

1997. 3. 23
울산 북구 천곡동 927-7번지에 울산지원 신축불사 시작

1999. 11. 28 대웅전 상량법회 거행

2001. 4. 22
법당 준공대법회 진행, 거사합창단 창단

2003. 4. 20
도량탑 제막식 봉행

2004. 11. 7
세종문화회관서 간암환자 돕기 합창

2005. 10. 30
울산문화예술회관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합창제 개최, 성금 3000만원 기부

2008. 9. 27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개최, 1000만원 기부

2009. 11. 11
재단법인 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후원단체 등록

2012. 4. 울산지원 장학회 발족

2014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 후원사찰 협약

2016. 9 태풍 수재민 돕기 3000만원 기부

2019 어린이 합창단 창단

금산사, '월주스님 추모게시판' 개설

생전 인연있는 분들의 대종사와 인연 일화 게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보살행과 행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온라인상에 마련됐다.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일원)는 월주 대종사 종단장 후 금산사 홈페이지에 추모게시판을 마련하고 생전 스님과의 인연, 추억, 스님의 보현행원을 기리는 글과 사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0일 현재 12편의 글이 올라와 있는 추모게시판에는 '스님~ 그리움을 어찌 합니까' '산새들조차 웁니다. 극락왕생하소서' '스님 속환사바하소서' 등의 글과 월주 대종사 상좌 도법 스님의 '은사 스님의 삶을 기리며' 등 추모글들이 올라와있다.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은사 스님을 기리며'라는 글에서 "다시 눈감고 살아온 이 순간까지의 세월을 떠올려 보면 평소 도법은 스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따뜻한 밥상 한 번, 용돈 한번 올리지 않아 불효라고 말하면 그 첫 자리는 제 자리다"며 "뒤늦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스님께서 보여주신 깨



달음의 실천인 보살행 수행을 내 삶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그 자리가 효도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은사스님을 기렸다.

금산사 관계자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게시판은 인연 있는 분들이 사연을 나누며 대종사님이 걸어왔던 보현행원의 삶을 함께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월주 대종사 추모 게시판은 1주기인 2022년 6월까지 운영하며 게시된 글들은 추후 책과 영상으로 제작하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사업'에 활용된다.

게시판 접속은 금산사 홈페이지(geumsansa.org)에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지대방'의 '월주스님 추모게시판'을 클릭하면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으로 조명한 오대산 三大和尙의 삶과 수행

'사진으로 만나는 三大和尙' 展
월정사박물관 22년 3월31일까지
한암 · 탄허 · 만화 사진 3백여 점

오대산 삼대 화상으로 불리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을 사진으로 만난다.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8월 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사진으로 만나는 오대산 삼대화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의 생전 기록 사진 300여 점을 선보이며, 사진을 통해 삼대 화상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살펴본다.

한암 선사(1876~1951)는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한 대표적인 인물로 참선을 중시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함께 갖춰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다.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과 세속화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한국불교를 계몽하고 전통회복과 통합에 힘썼으며, 1941년 새롭게 출범하는 조계종의 초대종정을 역임했다. 이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퇴각하면서 상원사를 소각하려는 위기를 온몸으로 지켜내고 그 해 3월 21일 세수 75세, 법랍 54세로 좌탈했다.



삼대화상 전시가 진행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모습.

탄허 대종사(1913~1983)는 근현대 한국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다.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탄허 스님은 10대 시절 기호학파 학통을 이은 이극종을 스승으로 한학연구에 매진했으며 22세 때 한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하여 전소된 월정사를 중건했으며 교육만이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오대산 승려연합수련원(1936), 오대산 수도원(1956)을 통한 교육사업과 후학양성에 힘썼다. 평생을 걸고 이룩한 〈화엄경〉 및 여러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를 펼쳤다. 특히 〈신화엄경합론〉 완간(1975)으로 이루어낸 화엄학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1983년 6월 5일 세수 71세, 법랍 49세에 입적했다.

만화 선사(1922~1983)는 오늘날의 월정사 대가람을 일구어낸 주역으로 한암 선사의 승가오칙을 계승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전소된 월정사를 중창하고 스승인 탄허 대종사의 교육에 대한 원력을 이었다.

평안북도 덕천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린 나이에 한학을 통해 일찍 문리를 터득하였으며, 1938년 20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탄허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대산수련원을 졸업하고 참선수행에 전념한 뒤 1945년 상원사 총무, 1953년 상원사 주지를 거쳐 1954년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서고 1956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한 뒤 오대산수도원을 설립하여 승려의 자질 향상에 힘썼다.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린 월정사 적광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을 복구하여 오대산문의 불교문화를 재건하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 1983년 12월 11일 세수 64세, 법랍 45세에 입적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의 큰 버팀목이었던 오대산 삼대 화상의 삶과 수행을 되새겨보고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33)339-7000.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